



오늘은 내가 형

글·그림 박인혜

작가의탄생

오늘은 내가 형

글·그림 박인혜



작가의탄생

작가의 말



박인혜

바다와 하늘을 좋아해서 ‘바하쌤’이라고 불리는 독서토론 선생님입니다. 그리고 두 아들을 둔 호랑이 엄마이기도 하지요.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 그리고 그림책에 더 빠져든 것 같습니다. 수업에 있었던 이야기나 못했던 이야기들을 그림책으로 이야기해보고 싶어졌습니다. 그중에서 아이들의 느낌표(!)가 가장 컸던 ‘역지사지(易地思之)’에 관한 책이 첫 번째가 되었네요.

책을 통해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일은 언제나 즐겁습니다.
나의 첫 그림책으로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벌써부터 웃음이 묻어납니다.

2022년 도서관·박물관·미술관 1관1단
그림책이 좋아서


지은이 박인혜

발행일 2022년 11월 28일 발행

펴낸곳 양주희망도서관

주 소 경기도 양주시 삼승로 78-47

 문화체육관광부

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

 양주희망도서관

제 작 (주) 작가의탄생

[비매품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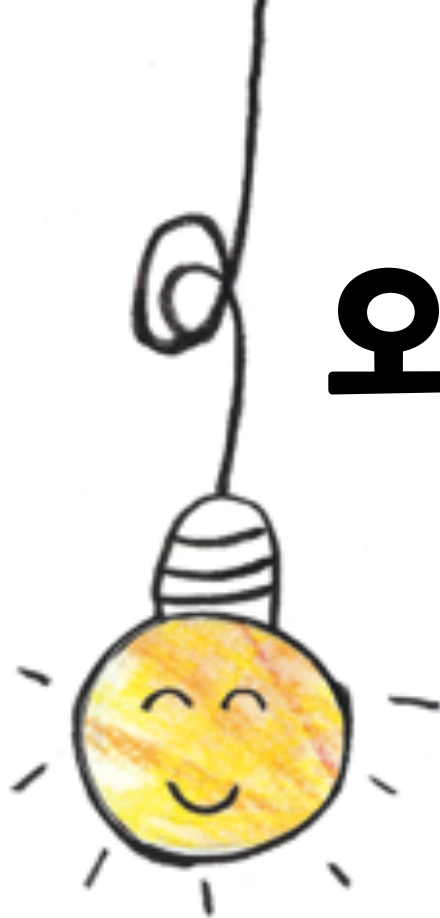
*본 도서는 2022년 도서관·박물관·미술관 「1관 1단」 사업에 선정되어 발간하였습니다.

*저작권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.

*사업 안내 및 홍보 이외에 기타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합니다.

오늘은 내가 형

글·그림 박인혜



불끄





무슨 일이야?
왜 또 싸우는 거야.
형이 양보하고 잘 데리고 놀아야지.
동생은 형 말 잘 듣고
제발 사이좋게 지내라.
왜 자꾸 싸우는 거니…….



그 녀석이 문제다.

언제나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.

내가 형인데 그래놓고 매번 울어서 나를 혼나게 한다.

억울하다.



형은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다.

내방도 막 들어오고

내 물건도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가져간다.

게다가 매일 심부름을 시킨다.

화가난다.





둘이 서로 자기가 더 억울하다고 하니
도대체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는지
서로의 억울함을 직접 느껴 보는 게 좋겠어.
오늘 하루 형과 동생 바꿔서 살아봐!

आप



आप













형이 되면 무조건 좋을 줄 알았는데
귀찮은 것도 많고, 힘든 것도 많고
부담되는 것도 많고 저만큼 서운할 것 같아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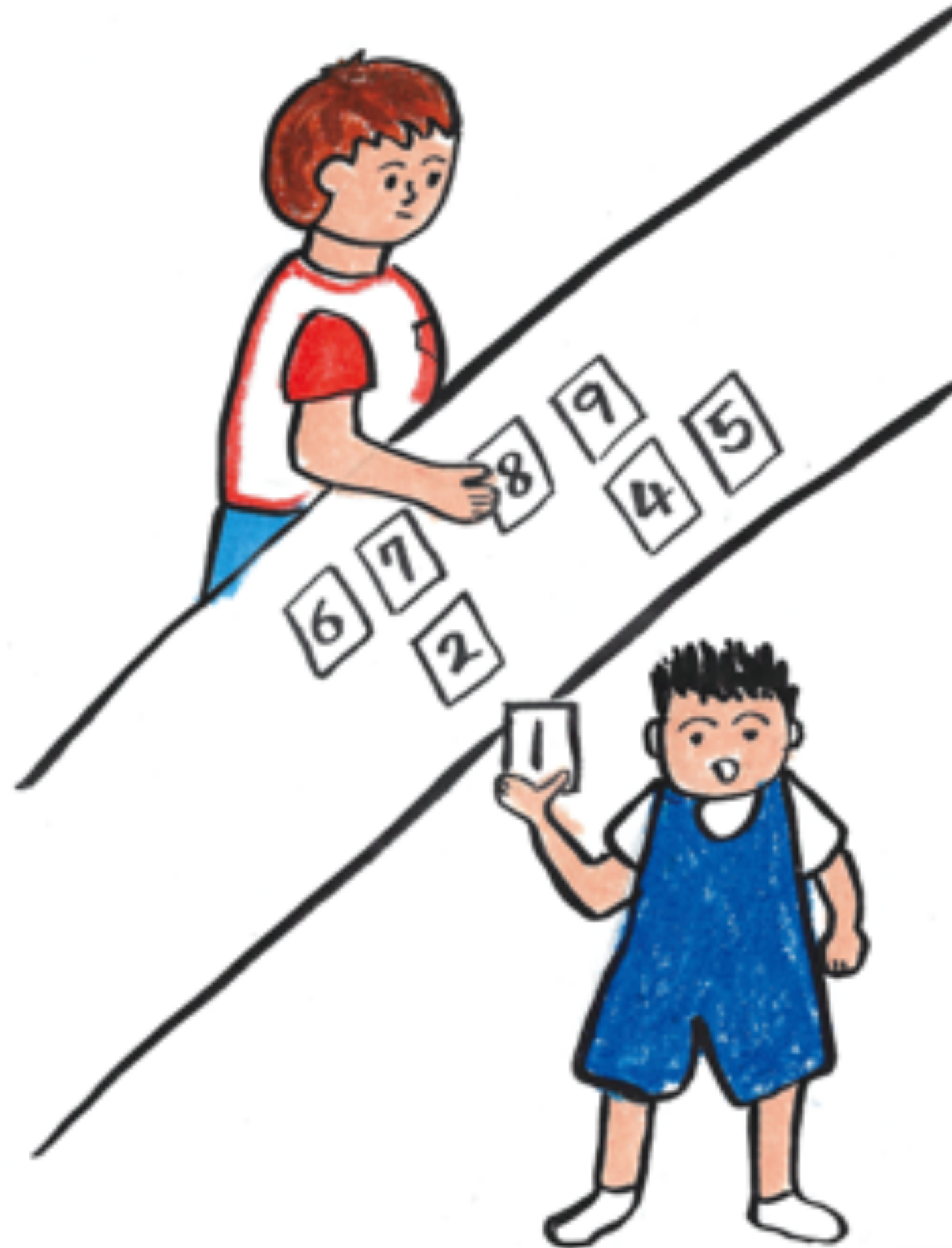


동생은 귀여움만 받고 때만 쓰는 줄 알았는데
불공평하고 너무 시킨다는 생각도 들것 같아요.

제가 조금 너무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.....



하루 동안 동생으로 또 형으로 살아내느라 고생했다.
엄마도 형한테도 동생한테도 심부름과 부탁들 너무 했나봐.
우리 서로 규칙을 정해보는 건 어떨까?



다음에는 엄마랑 아빠도 바꿔서 살아보시면 어때요.

아니다!

엄마랑 우리랑 바꿔서 살아봐요.

엄마 아들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.



